

서부권

만호해역 김 양식 어업권 싸움 '팽팽'

진도 관할 1369ha 해남 어민이 사용... 면허기간 만료후 재발

"진도바다 둘러달라" vs "연장돼야" 사태 장기화

해남군과 진도군 어민간에 분쟁으로 떠오른 만호해역 김 양식어장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해남군 어민들은 면허 사용기간 연장문제에 대해 진도군과 진도수협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진도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와 해남군도 지금까지 양측 어민들의 분쟁 해소를 위해 5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 방안으로 '내체어장 개발'로 양측 어민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나 양 지역 어민들의 이견으로 뚜렷한 해결책으로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분쟁해결의 대안으로 '내체어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6

일 농수산식품부를 방문해 김·전복 양식 등의 신규개발을 건의했다.

만호해역은 지난 1993년 어업권 분쟁으로 해남·진도군간에 첨예한 문제로 대립됐으나 1996년 해남·진도군 만호해역 김양식장에 대한 합의서를 당시 해남·진도 군수와 어업인 대표간에 작성해 일단락됐다.

만호해역 김양식 면허지 1369ha는 진도군 관할 구역으로 진도수협이 어업권자이지만 20여년이 넘도록 어란 지역 300여 어가가 김양식 어업권을 행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0년 6월 전남도 주관 하에 해남과 진도 어업인 대표들과 양 군 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 2000년 6월부터

■해남-진도 만호해역 어장 위치도



올 6월 7일까지 10년 동안 송지 어민들이 어업면허를 받아 김양식을 하고 있다.

해남군 어민들은 그동안 어업권자인 진도수협에 매년 34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6월 10년간의 면허기간 만료와 함께 불거지기 시작했다.

만호해역 1369ha 김양식 면허지를 두고 진도·함평·모도 어촌계 어민들이

면허기간이 종료됐으니 면허지를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어 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해남군 어민들은 "만호해역 김양식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해남 김산업 발전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면허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진도군 어민들은 "같은 어민들의 입장에서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 "해남군 어민들이 지금까지 15년 이상 사용했으니 진도바다를 이제는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만호해역의 김양식장 면허면적은 1370 ha로 어업권자는 진도군 수협장으로 되어 있으며 해남군 송지면 4개 어촌계 300여호의 어가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양파종자 기계파종 봉사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진)는 양파재배 농가의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양파종자 기계 파종을 하는 무료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양파종자 파종을 시작으로 흙덮기→물대기→묘상(苗床)관리→병해충 예방작업 등 재배과정을 기계화하면 농촌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 종자량 30%절약 등 경영비 절감, 균일한 양파생산으로 상품가치 향상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센터는 기계 임대사업소내에 연간 3만상자(보포 33ha용)가량 파종할 수 있는 양파파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 양파 기계파종 희망농가를 파악한 결과 4만4000상자(보포 48ha)가 신청돼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신청 전량을 기계파종할 계획이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에서 매년 양파를 900여 ha 재배해 220억원 상당의 조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현재 양파파종기를 임대·장산·안좌·암태농협에 지원해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도읍에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더위 식히는 '조롱박터널'

함평군 월야면 용원리 달맞이공원에 조성된 '조롱박 터널'이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명소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폭 4m·길이 200m 규모의 터널에는 조롱박과 수세미 등 관상용 식물과 다양한 호박색이 더해져 색다른 볼거리를 연출하고 있다.

함평군 월야면 용원리 달맞이공원에 조성된 '조롱박 터널'이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명소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폭 4m·길이 200m 규모의 터널에는 조롱박과 수세미 등 관상용 식물과 다양한 호박색이 더해져 색다른 볼거리를 연출하고 있다.

함평군 월야면 용원리 달맞이공원에 조성된 '조롱박 터널'이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명소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폭 4m·길이 200m 규모의 터널에는 조롱박과 수세미 등 관상용 식물과 다양한 호박색이 더해져 색다른 볼거리를 연출하고 있다.

함평군보건소 순회암 조기검진사업

을 1만2000명 대상

함평군보건소가 지역을 순회하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전개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함평군보건소는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국가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군 보건소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순회암 조기검진사업 500여명을 목표로 9개 읍·면 순회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협조를 추진하고 있는 이번 검진은 암·간암·자궁암·유방암·대장암 등 5대 암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암에 난소암 검진을 추가해 실시하고 있다.

함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암 조기검진으로 암이 발견될 경우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자는 반드시 국가암 조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완도교육청 '톡톡 영어체험캠프' 호응

완도교육청은 (교육장 장재익)이 최근 완도 외국어체험센터에서 '톡톡(Talk Talk) 영어체험캠프'를 운영,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는 완도초등·중양초등 등 관내 초등학생 50명과 중학생 50명을 각 학교에서 추천받아 전액 무료로 2주일간 숙박형 캠프로 운영됐다.

이번 영어캠프는 학급별 정원을 10명으로 정해 원어민 교사의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끼리 영어로만 대화를 하도록 해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했다. <사진>

영어 체험캠프 운영을 분석한 결과 체험활동을 강조한 요리·과학·의료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캠프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 초등학생 81%, 중학생 95%가 만족했다는 응답을 했다.

참여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가 만족했다는 응답을 했으며, 95%가 영어캠프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장재익 교육장은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원어민과 함께 생활하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체험중심 캠프로 운영했다"며 "겨울방학에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시설을 보완해 학생들에게 더욱 유익한 캠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함평 돌머리 해변에 한옥 전원마을

내년 착공 2014년까지 50가구 조성

함평군 돌머리 해변에 한옥 전원마을이 조성된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 석성리 돌머리 해변 3만3000㎡ 부지에 오는 2011년 착공해 2014년 완공목표로 50가구 규모의 한옥 전원마을을 조성한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타당성 용역

을 마쳤으며, 돌머리 해변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지 협조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군은 부지매입과 택지개발·건축비 등 총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직접 분양할 예정이다.

군은 돌머리 해변이 접근성과 지리적 위치, 주변 관광자원 등을 고려하

면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익한 행복마을을 담당한 '돌머리 해변'은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광주에서 승용차로 30분 소요되며, 전국 4대 갯벌 중 한 곳으로 바닷가 풍경이 좋고 생태체험하기에 적지"라며 "전원마을이 조성되면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해남 봉동계곡 삼림욕장 변신

야영장·체육놀이 시설 등 확대 추진

해남군 현안면 봉동계곡이 삼림욕장으로 변모한다.

해남군은 대표적인 자연발생 유원지 조 편백림이 우거진 현안면 봉동구수골 일원 계곡을 삼림욕장으로 개발한다.

군은 최근 구수골 자연발생유원지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개발 방향과 단계별 사업 추진 내용을 논의했다.

용역을 맡은 ㈜장산엔지니어링은 "두류산 도립공원과 편백림 조림지, 계곡과 저수지 등이 연계된 천혜의 자연 여건을 지닌 구수골을 자연과

놀이가 중심이 되는 차별화된 삼림욕장으로 조성해 나가기"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봉동계곡에 현재의 물놀이 시설 이외에도 야영장과 체육놀이 시설을 확대하고 산책로와 약초밭, 자연탐방로 등을 갖춘 자연 생태 관촬지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김영희 ☎ 062-364-8700 H.P.010-4608-3700

Table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real estate listings, including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

현대공인중개사

Table listing real estate properties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

금당 공인중개사

Table listing real estate properties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